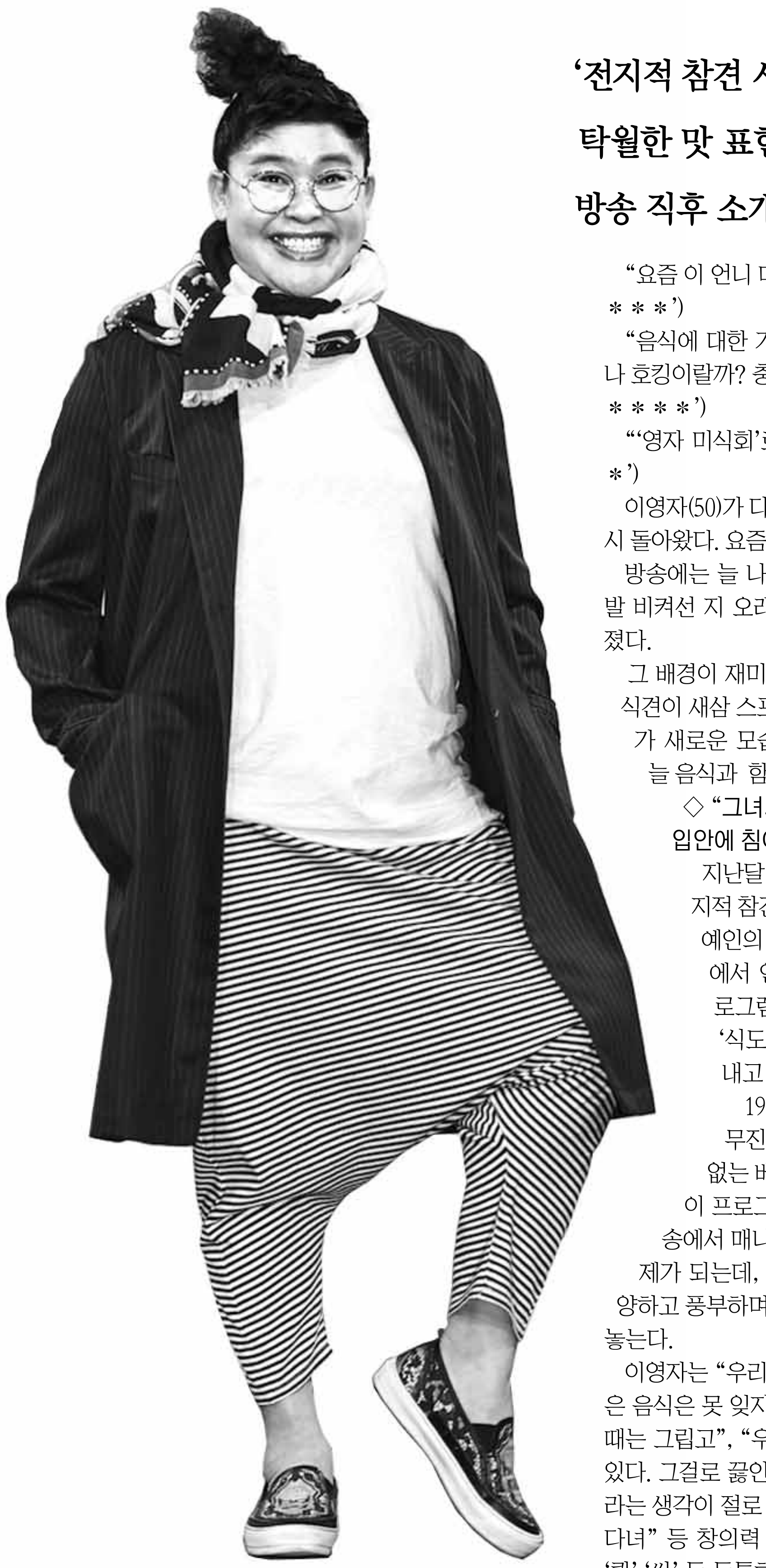
휴게소 완판녀로 ‘영자 전성시대’



‘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 인기 급상승
탁월한 맛 표현력에 시청자 칭찬 일색
방송 직후 소개된 음식 매출 상승 기록

“요즘 이 언니 매력에 푹~”(네이버 아이디 ‘alic＊＊＊＊’)

“음식에 대한 기억력과 표현력은~ 음식계의 잡스나 호킹이랄까? 충청도식 표현법도 난 좋아요”(‘g791＊＊＊＊’)

“‘영자 미식회’로 이름 바꿔주세요”(‘pump＊＊＊＊’)

이영자(50)가 다시 돌아왔다. 정확히 그의 인기가 다시 돌아왔다. 요즘 말로 ‘실시간 인기 급상승 중’이다.

방송에는 늘 나왔지만, 젊은층의 관심권에서는 한 발 비켜선 지 오래였던 이영자가 오십에 다시 ‘핫’해졌다.

그 배경이 재미있다. 음식에 대한 탁월한 표현력과 식견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덕분인데, 이영자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영자는 늘 음식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 “그녀의 음식 설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인다”

지난달 3일 시작한 MBC TV 토요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이영자 덕에 뜨고 있다. 연예인의 가장 측근인 매니저의 시선과 입장에서 연예인을 관찰하고 조명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영자는 ‘음식 탐미주의자’ ‘식도락가’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1991년 데뷔해 27년간 방송에서 종횡무진하며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곳이 없는 베테랑 이영자의 생생한 식도락 경험이 프로그램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 그가 방송에서 매니저에게 추천하는 맛집은 곧바로 화제가 되는데, 무엇보다 음식을 설명하는 그의 다양하고 풍부하며 생생한 표현력이 시청자의 넋을 빼놓는다.

이영자는 “우리는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도 한 번 먹은 음식은 못 잊지~”, “첫 입은 설레고 마지막 먹을 때는 그립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다 깨우는 황태가 있다. 그걸로 끓인다. ‘아, 그래도 세상을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물고기들이 입에서 막 돌아다녀” 등 창의력 돋보이는 표현력을 과시한다. ‘푹’ ‘콱’ ‘쏴’ 등 독특하고 걸죽한 의성어도 풍성하게 사용하며 오감을 자극한다.

그는 심지어 자신만의 맛집노트도 갖고 있다. 그 노트를 출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광고용이 아닌 진정한 맛집리스트라는 것이다.

음식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자세와 진정 맛을 음미하는 모습도 한밤 시청자의 식욕을 달아오르게 한다.

실제로 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 음식으로 선택한 서울 만남의광장의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과 안성휴게소의 소떡소떡은 방송 직후 엄청난 매출 상승을 기록하며 인기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음식평론가 이영자로 불러야 함” “이영자 음식얘기 듣고 있다보면 너무 웃겨서 스트레스가 풀림” “음식 설명 할 때는 진짜 달려가고 싶었어용” “이영자 씨 매니저하고 싶어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맛난 것 많이 먹을 수 있을텐데” 등의 시청평이 쏟아진다.

◇ 무대 중앙으로 돌아온 언니…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의 귀환

1990년대를 휘어잡았던 ‘방송계 1인자 언니’의 귀환이다. 쉬지 않고 늘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 십여년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비켜 서 있던 이영자가 ‘전지적 참견 시점’ 덕에 다시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왔다.

지방흡입에 대한 거짓말에 이어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 했다는 거짓말이 문제가 되면서 이영자의 전성기는 끝났다. 넉살 좋고 거리낌 없고 파워풀하면서도 구수한 이영자는 ‘무리한 거짓말’에 발목이 잡혀 고꾸라졌다.

한때는 여기저기서 잡으려 해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열 남자 MC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렸지만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방송환경의 변화와 MC들의 스타일 변화도 ‘이영자 전성시대’를 마감하게 했다. 단독 MC에 독보적이고 입담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이영자이지만, 리얼 버라이어티 시대가 열리면서 그는 서서히 ‘옛사람’이 됐다.

하지만 이영자는 버텼다. 메인 역할에서 보조 역할로 밀려나도, 말하는 역할에서 듣는 역할로 바뀌어도 계속 방송을 했다. 욕심 같아서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프로그램을 휘어잡고도 싶었지만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생명을 연장해갔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자칫 이영자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갑과 을로 비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사랑과 탁월한 코믹함으로 무장한 이영자의 모습은 다른 모든 위험을 넘어 시청자가 이영자에게 오롯이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오랜만에.

/연합뉴스

BTN 다큐 ‘다비’ 휴스턴영화제 수상작 선정

불교방송 BT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다비’(茶毘)(연출 최동철 PD)가 제51회 휴스턴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BTN이 9일 밝혔다.

2부작으로 구성된 ‘다비’는 불교의 전통적인 화장 장례 의식인 ‘다비’ 현장을 1년여간 취재해 이에 담긴 불교의 생사관과 수행 정신을 영상언어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제51회 휴스턴국제영화제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행사로, 오는 28일(현지시간)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다비’는 이번 영화제에서 다른 다큐멘터리들과 레미상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연합뉴스

송윤아·김소연 SBS ‘시크릿 마더’ 주연

다음달 ‘착한 마녀전’ 후속 방송

배우 송윤아(45·**왼쪽**)와 김소연(38)이 SBS 새 주말드라마 ‘시크릿 마더’에서 호흡을 맞춘다.

‘시크릿 마더’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여자의 집에 의문의 ‘입시대리모’가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입시대리모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받고 다른 자녀의 대입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9일 송윤아와 김소연 소속사에 따르면 송윤아는 매사 완벽한 계획으로 자식 교육에 혼신을 다하는 전직 정신과 의사 김윤진을, 김소연은 입시대리모 리사 김을 연기한다.

두 사람 외에 송재림이 캐스팅됐다.

‘착한 마녀전’ 후속으로 오는 5월 방송 예정.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우리가 만난 기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앙코르 MBC 스페셜 〈대한민국 이재용〉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1 대 100(재)	20 가자! 낭만 고향(재)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문화사색(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프리파라 3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5 UHD다큐멘터리 3부작 세계의 도시, 과학을 만나다(재) 55 뉴스콘서트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KBS 혁신프로젝트 끝까지 간다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2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하룻밤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라면왕, 무너진 네팔을 일으키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윙스2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허풍선이 과학쇼(재)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쇠미역 조갯살무침과
마늘종 멸치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큐 오늘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멸종위기 탈출, 유라시아수달〉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5:0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마샤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은 영화처럼 흐르고
일본영화기행2부〉
21:30 한국기행
〈내 친구는 동물이로소이다 2부
너의 목소리가 들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우리만 이런가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글라데시에서 온 형제〉
24:45 지식채널e
24:50 한국영화특선 〈바보들의 행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음 2월 25일 壬申)

子 **36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48년생** 실효성이 중하다. **60년생**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해야겠다. **72년생**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84년생** 기한을 도과한다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16

丑 **37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49년생** 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61년생** 임의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73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85년생** 갈급하고 있는 바는 보이지 않고 간접적인 것만 눈에 띈다. 행운의 숫자 : 93, 84

寅 **38년생** 새로운 판세의 빛이 비춰오고 있느니라. **50년생** 확실히 잡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62년생** 지난날의 부실함을 만회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74년생** 길조가 나는 듯이 기운차도다. **86년생** 근면함이 복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60, 15

卯 **39년생**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51년생**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양태이다. **63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75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87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90

辰 **40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52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64년생** 폭넓은 시야라야 참신함을 도모할 수 있다. **76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88년생**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라. 행운의 숫자 : 06, 80

巳 **41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53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을 써라. **77년생** 눈 똑똑히 뜨고도 속을 수 있다. **89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행운의 숫자 : 37, 06

午 **42년생** 격식과 소득이 없느니라. **54년생** 구별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8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수용하는 것이 옳다. **90년생** 상호적이라야만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54, 31

未 **43년생** 오판은 일을 그르치게 한다. **55년생**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67년생**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라. **79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91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2, 54

申 **44년생**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할 일이다. **56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68년생** 종합적으로 자세한 점검 해보자. **80년생** 빠를수록 능률적이다. **92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3, 08

酉 **45년생**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7년생**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9년생** 주저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81년생** 파격적인 국세이니라. **93년생** 구색을 맞추다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7, 22

戌 **34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 **46년생** 현행대로 실행하는 것이 유익하다. **58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70년생** 잘 표시해두어야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82년생**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발전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7, 67

亥 **35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47년생**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59년생** 준비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1년생** 이대로 가다가는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겠다. **83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0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